

지역 작가와 작업실 지원

청주의 정서에 맞는 작업실과 시민교육

culture | art

대안공간은 미술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공동 장르를 통해 문화 공유를 하고 그로 인해 생산된 문화는 바로 시민의 것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대안공간은 문화적 공간인 동시에 휴식 공간으로 활용 빈도가 높다. 상시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미술문화와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청주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김기현

충북 민미협, 화가, 미술칼럼리스트

청주지역의 지리적 환경

청주는 지역 정서로 보아 미술문화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에 둔감한 부분이 있다. 지리적 환경이 수도권으로의 진입을 원하거나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대의 거리이기에 미적 향수를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주에서 누리려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전문 미술관이나 상설화랑 등의 공간시설이 성장하는 데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높은 화랑의 문턱을 좁히려는 기획들이 시도가 되었지만 시민 미술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기초예술 붕괴직전의 모습에서 새롭게 탄생하려는 노력들을 끝없이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다.

청주 지역에서의 문화 관련 축제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직지축제, 그리고 다양한 예술제들로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이다. 하지만 시민들 자체가 공예로의 지역사업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는 축제는 오히려 지역의 공예인에게까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세미나와 공청회는 지역문화를 뿌리가 없는 공예로 만들어 가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작가들이 기초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고 작업실 운영비까지 다른 일의 수입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축제기획자들에게 돌아가는 엄청난 이익에 다소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근간 작가와 단체의 노력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작업실화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일부 사용되고 있는 예가 있기도 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작가의 작업실과 시민 재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관이 나서야 할 일이다. 몇 가지 안으로 청주지역의 정서와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작업실 공간에 대한 제안을 던진다.

1. 구 기무사 건물의 활용안

구 기무사 건물은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청주에서 활용 방안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여, 전담대, 복지시설, 미술관 등이 선택되었다. 이에 미술인들은 구 기무사 건물은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이 기존 사용하던 이미지를 탈 이미지화 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공간은 미술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공동 장르를 통하여 문화 공유를 하고 그로 인해 생산된 문화는 바로 시민의 것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또 대안공간은 문화적 공간인 동시에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의 빈도가 높다. 상시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미술문화와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청주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아도 고인쇄박물관(직지 관련 박물관)과 한국공예관, 그리고 예술의전당, 신미술관, 무심갤러리를 잇는 미술문화 벨트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안고 있는 곳이다.

2.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관련한 작업실 활용안

청주를 공예의 도시로 만들려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예는 산업화의 부분으로 순수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

문이다. 청주 지역에서의 작은 전시들이 거대한 물량투자의 전시축제에 밀려 왜소함을 벗어나기 힘들고 시민들 자체도 작은 화랑의 전시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초기 백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공예비엔날레를 성대히 치렀으나 행사가 끝난 후 남아 있는 시설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임시로 시설한 가설 건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바로 시설을 해체해야 하는 장소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이다. 2005년은 제4회 국제공예비엔날레로 공예의 공공성을 지역 작가에 의해 순수미술로 포장해 보려는 시도가 있다. 청주시가 청주문화산업재단 1층 공간을 전시장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전시 이후 상설전시장과 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 작가들의 작업실이 입주할 하게 된다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도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비공개적이고 운영위나 일부 자문만을 전부로 하고 있기에 실수요자인 작가들에게는 얼마나 수용이 될지는 의문이다. 행사 이후 당연히 작가에게 돌아갈 공간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작가에 대한 상주 지원과 이후 축제 행사에 함께하는 연계성과 연속성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미술관 아우라로서의 작업실

정부지원과 청주시의 매칭 펀드로 시립미술관 건립이 가시적으로 수면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미술인조차

왼쪽 · 200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식 장면, 오른쪽 · 청주 고인쇄박물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계획의 시행조차 발표된 적이 없다. 아마도 재정적 문제가 남아 있는 청주시로서는 사업의 발표를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2003년 충청북도 문예정책 부채론을 내걸고 다양한 문화예술정책관련의 정책세미나를 위해 도 문화예술과와의 토론이 있었다. 다양한 대화들 속에서 미술관과 작업실 문제를 제기하고 충청북도가 미술문화 발전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그 첫 번째가 미술관의 건립이지였으나 충청북도는 주변 군에서 설립하고 있는 대청호 미술관의 운영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미흡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원군 운영의 대청호 미술관은 전망은 좋으나 접근이 쉽지 않아 미술 대중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힘든 것이 현실이다. 청주시가 준비하는 미술관도 제 기능의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시 작품만을 감상하는 일반적 미술관으로는 청주시역이 안고 있는 열악함이 너무 많다. 일 년 연중 전시가 가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 혹한의 경우 특별한 기획을 하고 상시 작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살아 있는 미술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미술관 작업실프로젝트다. 미술관의 아우라를 이루고 있는 작업실, 공방, 야외조각실들이 존재할 때 실제 작업을 하는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살아 있는 미술교육 현장이 될 것이다.

4. 복합 문화센터 건립의 예

충북민예총은 2004년 말 문화 소외지역 사업으로 복합문화 공간을 설립하고 2005년 2월 문을 열었다.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 2층 중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작가들의 작업 공간 겸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총 6개의 공간에 관화실, 서예실, 컬러-색채학실, 영상 및 음향편집실, 촬영실, 암실 등을 마련하여 강습이 없는 시간을 작가

문화는 창출해내는 산업의 장르에 따라 시각적 활용도에 의한 유형의 산업과 무형의 산업도 산업의 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정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으로 상주하는 동안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된다. 아직은 미흡하고 결정과정이나 계약과정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에서 양쪽이 풀어야 할 문제는 있지만 시가 그나마 작가들에게 공간을 배려한 것은 향후 바람직한 예가 될 것이다.

현재 이 공간에는 화가와 서예가, 그리고 관화가 외 영상, 음악관련 작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목판화 강좌, 서체연구 강좌, 색채학 교실, 영상편집 강좌 등이 이미 실시되었고 제2기 문화예술 경영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고 북-아트 강좌가 계획되어 있다.

문화는 창출해내는 산업의 장르에 따라 시각적 활용도에 의한 유형의 산업과 무형의 산업도 산업의 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미술은 이런 의미에서 시민과 대중과 함께 정신적 지식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예술의 장르이다. 때문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어떠한 장르보다 적절한 시민교육과 함께 오픈스튜디오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기초미술 살리기의 의미로 보아도 이 장소의 활용은 청주의 기초미술 환경에 막대한 도움을 주는 공간 활용으로 자리할 것이다.

특히 현재 기무사는 무심깎러리, 신미술관, 예술의전당, 공예관 그리고 충북대, 서원대, 청주대 미술과 대학원생들의 참여적 프로젝트의 활용과 젊은 작가의 실험정신으로 전시공간을 활용하고 작가를 상주케 하여 보다 시민과 밀착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술 활동은 사회적 활동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작업실의 지원과 작가의 지원 정책은 기초예술 부채의 지역에서 미술이 살아남을 수 있고 미술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의 유일한 방법이다. 